

종합·해설

추석 전 ‘운명의 2주’
대권 3인방 승부수 띄우나

여야 대권구도가 일단 3각 구도로 그려진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3명의 유력 후보가 추석 전 운명의 2주에 모든 것을 걸 태세다. 추석이나 설 대령 명절은 일반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중대 시기로 이번 추석 여론 역시 향후 대선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세 후보는 이번 추석 연휴가 올 대선의 1차 승부처로 보고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온갖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6년전 추석악몽...역사인식 논란 대치 관심

■ 박근혜

인혁당 발원 논란과 야당 후보들의 전면 등장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박근혜 후보에게는 다른 후보보다 빨리 무대에 등장한 만큼 이번 추석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박 후보 입장에서 6년 전 ‘추석의 악몽’도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는 줄곧 수위를 달리다 대선을 1년여 앞둔 2006년 10월 추석 직후 당내 경쟁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한 뒤 끝내 따라잡지 못한 기억이 있다.

박 후보 입장에서 자신의 역사인식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지지를 등락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측근들 사이에선 박 후보가 ‘인혁당 발원’ 논란에 대해 사과인장을 밝힌 만큼 과거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박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박 후보가 전략적으로라도 좀 더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과 관련한 의원총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류가 있어 주목된다.

책임총리제·책임정치...친노 백의종군 주목

■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지지를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쇄신과 화합’을 내세웠다.

우선 문 후보는 선대위 내에 정치쇄신타워를 만들어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또 화합과 통합을 위해 모든 계·정파를 끌어안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문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

정치 실현’을 약속한 것도 화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책임총리제는 경선 탈락 후보 및 당내 반대 세력을 아우르고 안 원장과 단일화까지 고려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또 정당책임정치는 경선 과정에서 소외된 당원들을 어루만져 당을 단일대오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친노 백의종군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내 여러 정파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문 후보와 친노 핵심세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마선언 초읽기...야 후보 단일화 승부 돌입

■ 안철수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의 뜻을 굳혔다면 유력 후보 중 가장 늦게 대선전의 무대에 오른 안 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추석민심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출마선언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원장 측은 출마 선언 시 기성 정치권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세력임을 각인시키는 대국민 메시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 출간

이후 다양한 분야와 계층, 세대, 지역의 국민을 만났던 ‘소통행보’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의·복지·평화 등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히고 대선 캠프에서 함께할 ‘안철수의 사람들’을 소개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 문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 및 방식에 대한 안 원장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관련 입장이 추석 밤상의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측, 야 단일화 군불때기

민주당 중심 대선 승리 방정식...안 원장 ‘입당·담판’ 필요성 압박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야 후보 단일화 국면에 대비, 기선 잡기에 나섰다.

안 원장의 민주당 입당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으로 ‘담판’에 의한 단일화에 무게를 두는 전변적인 등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문 후보 캠프의 노영민 공동선대위 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따라 출연, “안 원장 입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참신성, 도덕성, 새로운 정치 등의 관점에서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후보로 문 후보를 보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안 원장의 양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어 “두 분을 지지하는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두 분이 함께 출마하는 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 원장의 입당 문제와 관련, “민주당 중심의 대선전략이 결국은 승리

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공동선대본부장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민주당 소속으로 가는 것이 정당 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며 국민도 무소속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 원장을 압박했다.

안 원장의 신당창당설과 관련, 우

본부장은“(민주당으로) 들어와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현실을 바꿔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뒤, 단일화 시기에 대해선 “너무 늦게 확정되면 여당 후보와의 정책대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10월 중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 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기식 의원도 불교방송에 출연, “문 후보와 안 원장은 직접적 대화가 가능한 상태(단일화 협상)인 난항을 겪거나 복잡한 해법으로 꼬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며 “적어도 10월까지 결정을 한 후에 후보 간의 답답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문재인 때리기’ 총공세

최고위원회의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부패 본산’

새누리당은 17일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기선 제압용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의 장’을 방불케 했다.

이는 대선후보 확정에 따른 ‘문재인 컨벤션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문재인-안철수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대선판에 몰아달릴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이해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가 권력형 비리·부패를 염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많은 국민은 이를 믿기 어려워한다”며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 및 부패의 본산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2명,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 등이 실형을 살았는데, 최고 책임자였던 문 후보가 부정부패를 염단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냐”며 “친노(친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에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문재인-안철수 연대설’에 초점을 맞췄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경기지사 및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점을 거론, “이번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수많은 혈세를 받아 국고보조금으로 활용하는 제1야당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국민은 과연 대한

민국 정당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함께 걱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기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 안 원장의 입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처지”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를 못내면 민주당은 ‘서포터즈 정당, 치어리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안풍’(안철수 바람)의 재확산을 의식한 듯 안 원장에 대한 공세수위도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 정치쇄신 바람을 대권기회로 활용하려는 한탕주의적 처신”이라며 “안 원장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심 최고위원은 “기회주의적 행보”라고 공격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민 대선 정책제안 받습니다”

새누리 광주시장 '5천만 상상누리' 블로그 개설

새누리당 광주시장(위원장 유수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 ‘5천만 상상누리’ 블로그(blog)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제안 블로그 ‘5천

만 상상누리(http://5000nuri.blog.me)’는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아닌 국민과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공간을 통해 정책 실수요자에게 현실적·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우수 제안 및 아이디어는 제안자 이름으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안방은 ▲청년(일자리·학업) ▲가족(교육·육아·주거안정) ▲어르신(일자리 복지) ▲여성(여성일자리 안전) ▲취약계층(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지역발전(문화·첨단과학기술) ▲경제키움(물가·서민금융) 등 10가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auk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요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의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금매)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166p,
건평 470p,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유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 ▶광주 동구 선교동 벤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금매 대로 35m 도로접합, 투자가치높음, 매가21억
- ▶화순군 이암면 초방리 산14-1임야77,727㎡(23,512평) 매가 평당 5천원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 (1,412평) 매가평당100만
- ▶나주시 문평면 집종지 6차선도로450M 접합 15,638㎡(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 ▶국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 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부근 대지8,433㎡ (2,550평)매가평당90만
- ▶장성 서삼면 대곡리 대528평(계회관리지역 도로여건좋음)
-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좋음)대 210평 매가 평당 70만
- ▶무안군 운남면 연리 계회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120m접,지 대높음 매가평당15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장적합

기타물건 다량보유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200평)평당50만 참고주택공장적합
-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항차량 진입가능, 참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3,930평)도로접,공장창고 전원주택 등적합
- ▶나주군 봉화면 덕곡리 2차선 도로 접, 전,임야6,100평 매가1억5천만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 400만 중상상업지역 위치좋음
- ▶국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421평)년수익5~6백만, 주말농장 전원주택 가족모지등 매가 3,400만
- ▶장성을 덕진리 대로변 공장설립허가지역 참고, 전원주택,공장등적합, 전10,100평 매가 평당15만
- ▶장성 북하면 악수리 백암사입구 모텔 및 식당 대800평 현성업종 매가17억
- ▶서구화정동 염주사거리부근 상가 주택 중주거지역 대90평,건148평 보7천만 월540만 매7억
- ▶서구 풍암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54평,보1억8천만,월수1150만,매18억5천만 지하1 지상5층
- ▶광산구 흑석동 대로변 상가 매가 22억(용,보5억포함)월수익1400만
- ▶동구대인동 대로변 사거리코너상가 매가12억15천만(용,보5억2천포함)월수익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수익성
최 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m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경매투자 부실채권 특수물건

경매상담

- 1.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2.특수물건만 전문 취급
- 3.NPL 매입/투자비용 전수
- 4.단독/공동투자 가능
- 5.교육/임장비용 회비 550만원

자본주 모심 /10억이상

친절상담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